

평창동계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92개국 2천925명 열전



D-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평창에서 펼쳐지는 눈과 얼음, 동계스포츠 선수와 지구촌 사람들의 어울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의미

대회 기간 2018. 2.9 ~ 2.25 (17일간)

참가국 **92** 개국

참가선수 **2,925** 명

경기 종목 수 **15** 종목

설상 7종목 (금메달 수 61개)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빙상 5종목 (32개)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피겨 스케이팅

슬라이딩 3종목 (9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장 수
설상 경기장 7개, 빙상 경기장 5개 (신설 6개, 보완 2개, 기존 4개) **12** 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은 연출전을 공연장 규모 : 총 24만16천2㎡ (관람석 3만5천석)
투자금 : 1,226억 원 건설기간 : 2014.7~2017.9

마스코트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출전 규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총 144명** (15개 전 종목 출전)

빙상33명

스피드스케이팅16명

쇼트트랙10

피겨7

스키37명

알파인스키4

크로스컨트리4

스키점프3

프리스타일8

스노보드11

노르딕복합1

바이애슬론6

아이스하키48명

남자25

여자23

슬라이딩14명

봅슬레이6

스켈레톤3

루지5

컬링12명

남자5

여자5

믹스더블2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 71명 (6개 종목 출전)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연합뉴스

美, 동계올림픽 단일 국가 최다 242명·캐나다 226명

한국 15개 전 종목 144명·북한 5개 종목 22명 등록

러시아 출신 15개 종목 169명...말레이 등 6개국 데뷔전

다음달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2개국 2천925명의 선수가 등록돼, 참가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8개국, 2858명이 참가했던 2014년 소치 대회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늘었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설상 종목을 마지막으로 전 종목의 올림픽 출전권 배분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를 등록했고, 캐나다(226명)와 노르웨이(111명) 역시 명단을 확정했다.

개최국 대한민국은 15개 전 종목에 144명이 출전한다. 이는 4년 전 소치 대회에서 6개 종목, 71명이 출전한 것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은 5개 종목 총 2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을 합쳐 35명이 호흡을 맞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제로 인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선수는 15개 종목 169명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데뷔할 국가는 6개국이다.

말레이시아(피겨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싱가포르(쇼트트랙), 에콰도르(크로스컨트리 스키), 에리트레아(알파인스키), 코소보(알파인스키), 나이지리아(봅슬레이, 스켈레톤)는 이번 대회 전 세계 정상급 선수와 기량을 겨룬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00개 이상의 금메달이 걸린 대회다.

2014년 소치 대회와 비교하면 금메달 4개가 늘어나 102개(설상 70개, 빙상 32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인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참가국가와 선수단, 메달 등 모든 면에서 지구촌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라면서 “경기운영은 물론 각종 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가미한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IT적인 올림픽을 선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강원도에서 새 지평 열린다

2월 9일 개막 17일간 열전

北 참가로 평화올림픽 토대

남북 통상 10번째 공동입장

전 경기 입장권 판매율 80%

이제 열을 후면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일원에서 ‘새로운 지평’(The New Horizon)이 열린다.

동계스포츠 최대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 개막해 25일까지 17일간 열전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선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자 일본 삿포로(1972년)·나가노(1998년)에 이어 아시아에선 세 번째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힘겹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로드맵을 충실히 수행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해 왔다.

경기장·선수촌·KTX 고속열차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일찌감치 구축한 조직위는 수송·홍보·안내·외국인 손님 대접 등 마지막 ‘소프트웨어’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나라 선수단도 속속 입국해 강릉과 평창에 있는 선수촌에 2월 1일부터 입촌한다.

대회 개막을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이

달 초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받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회 참가를 결정하면서 평화올림픽의 토대도 마련됐다.

IOC는 20일 스위스 로잔의 본부에서 남북한 올림픽 참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을 확정했다.

남북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결성해 출전한다.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배려로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 등 35명으로 팀을 꾸려 경쟁 팀과 맞선다. 단일팀은 코리아(KOREA)라는 이름과 한반도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 영문 축약어는 불어 CORE에서 따온 ‘COR’이다.

남북은 또 국제대회에서 11년 만이자 통상 10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한다.

북한 응원단의 가세로 남북단일팀 관심이 폭증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입장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전 경기 입장권 판매율은 70%를 넘어 80%를 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중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등 최소 전 세계 15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이 자국 선수단과 함께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을 정상 외교 무대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인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는 2월 9일 평창에서 2018km 성화봉송 레이스를 마무리한 뒤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성화대로 옮겨 세계를 환하게 비춘다. /연합뉴스



남북 함께 생일파티 지난 28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생일을 맞이한 북측 선수를 축하해 주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11일 앞둔 29일 오후 메인프레스센터 앞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기원하며 자원봉사자들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선영, 다시 웃다

고심 끝 올림픽 출전 결심

9일만에 대표팀 복귀 훈련

우여곡절 끝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노선영(콜핑팀)이 9일 만에 대표팀에 복귀해 훈련을 재개했다.

노선영은 29일 오전 서울 태릉국제빙상장에서 대표팀 백철기 감독과 동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오후 3시부터 훈련했다.

그는 훈련 전 취재진과 만나 올림픽 출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관해 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출전하고 싶었던 올림픽이었다. 다시 기회가 왔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열심히 훈련에 임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상하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의 사과에 관해선 “회장님은 (자택을 찾아와) 부모님과 만났다”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맹과 문제가 불합했는지 묻는 말에도 “어렵게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갈등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긴 싫다. 지금은 훈련만 하겠다”고 밝혔다.

응원을 보내 준 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렇게 큰 관심을 주실 줄 몰랐다.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련의 갈등으로)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훈련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백철기 대표팀 감독은 노선영이 합류한 후 나눈 대화에 관해 “본인이 속상했던 부분을 내게 표현했다. 힘든 과정에 관해 핑계 대고 싶지 않아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다”며 “어렵게 대표팀에 합류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29일 오후 훈련을 위해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으로 복귀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노선영(왼쪽)을 밥 데 웅 코치가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기했다”고 밝혔다.

노선영은 팀추월에 나서려면 개인종목 출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빙상연맹의 착오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 길이 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출전권을 확보했던 러시아 선수 2명이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승인한 169명의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이 극적으로 구제를 받았다.

노선영은 최근 파문을 겪으면서 더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고심하다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난 전 쇼트트랙 대표팀 노진규의 친누나다. /연합뉴스